

# PEOPLE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전력거래소

##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워크숍

전력거래소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 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전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청렴 핸드프린팅' 포포먼스였다.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손자국을 찍은 한 참가자는 "청렴은 우리 조직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는 것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번에 남긴 손자국처럼, 우리 모두의 의지가 모여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 롯데 광주점, 광주천 환경 정화

롯데백화점 광주점 임직원 봉사단원은 최근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광주천을 가꾸는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광주천 정화활동은 지난 1일(4월 22일)을 기념해 추진됐다. 평소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 양립교와 서석교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임직원은 집계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캔, 비닐, 담배꽁초 등 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김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지구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광주천에서의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 광주 서부경찰

###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자 '감사장'

광주 서부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능력 양동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은행을 방문한 시민이 총 4회에 거쳐 3억 5000여만원을 잇따라 송금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알리고 계좌 지금 정지 조치를 취해 1억여원 상당의 주가 피해를 막았다.

앞서 서부경찰은 '대환대출' 사기 피해를 막은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B씨는 신속한 계좌 지금정지 요청을 해 추가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 예방과 겹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진 기자 yo1404@gwangnam.co.kr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현신적 활동 '훈훈'

대회 기간 1051명 봉사 참여

기본 교육 마친 후 현장 배치

"친절·열정' 대회 성공 견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총 1051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신적인 활동을 펼쳐 전남의 훈훈한 인심을 알렸다.

자원봉사자는 지난 2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해 선발됐다. 자원봉사 기본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친절교육을 마친 후 대축전 현장에 본격 배치됐다.

이들은 종합상황실 지원, 개·폐회식 지원, 경기 운영 지원, 안내소 및 홍보관 운영 등으로 대축전 기간 원활한 경기 진행을 돋우고 있다.

또한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로 깨끗하고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한한 미소와 친절로 도움이 필요한 선수와 관람객을 응대해 전남의 따뜻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총 1051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신적인 활동을 펼쳐 전남의 훈훈한 인심을 알렸다.

따뜻한 미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김성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장은 2023년 전국(장애인) 체전부터 올해 대축전까지 목포종합경기장 홍보관 운영에 참가해 관람객과 선수를 위해 부상 방지 스트레칭과 테이핑 치료, 운동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길 전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전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친절하게 선수와 관람객을 맞이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감동, 안전, 행복이 가득한 대축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축전은 3개년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원봉사자의 현신과 열정이 대회의 성공을 견인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이 대축전 현장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장은 관람객과 선수를 위해 스트레칭과 테이핑 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은 3개년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원봉사자의 현신과 열정이 대축전 현장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스팟홍보관 운영 '인기몰이'

(재)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현장에서 스팟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박람회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세련된 부스 디자인으로 현장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9일 새롭게 개편한 박람회 누리집 접속과 유튜브 채널 구독을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온라인 확산도 유도했다.

특히 관람객은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하고, 유튜브 구독 후 참여하는 즉석 복기 이벤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람회 공식 캐릭터 '콩이'와 '쌀이'의 키링, 기능성 유자유자료 '하이류', '흑허랑 상추' 등으로 인기였다.

김영란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농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널을 통해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기술 기반 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슬로건으로 한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린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흥행했다.

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이는 대규모 행사로 올해에는 약 2만여명이 참가했다.

조직위는 24일부터 흥보부스를 설치해 개최취지와 다양한 콘텐츠들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특히, 섬박람회 OX퀴즈, SNS 구독 이벤트, 포토존 등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공식마스코트인 '다심이'를 활용한 키링, 사워볼, 그림북 등 다양한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아름다운 섬에서 캠핑이나 트레킹을 하며 가을을 느낄 수 있고, 늦어위를 피해 바다를 즐길 수 있다"며 "섬에서 섬과 액티비티를 만끽하고 여수 섬의 매력을 빼놓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섬, 바다와 미래를 염두'라는 주제로 여수 돌산 진모지구 개도, 금오도, 여수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어룡신협, 수완지점 개점...서비스 확대

### 김춘석 이사장 "지역사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될 것"

광주어룡신협(이사장 김춘석)이 최근 광산구 수완지점을 새롭게 개점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수완지점은 광산구 임방울대로 506번지에 위치하며, 넓고 편리한 환경과 최신 금융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김춘석 광주어룡신협 이사장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 89개 신협을 관리 감독하는 김영하 본부장, 백도선 북광주신협 이사장, 김재일 우산신협 이사장, 이금옥 비아신협 이사장, 하남신협 나동상 이사장, 윤보현 광산구 자치행정국장, 조합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로 운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춘석 이사장은 "수완지점은 수완지구와 월계동, 비아동의 중심지역에 입점해 있고, 장성, 곡성 등을 잇는 호남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사 31년을 맞은 광주어룡신협은 임원 10명과 직원 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4년 소총공단 신협으로 출발해 2010년 어룡신협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조합 자산은 4760억원에 대출 3620억원이며, 수완지점 자산은 715억원에 대출 615억원으로 자산 대비 86.2%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상공회의소, 영남 산불피해 성금 기탁

### 광주시회복지모금회에 2000만원 전달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박철홍 광주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지난 3월 영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 작업, 임시 주거 지원, 생필품 제공 등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대규모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업무협의회 실시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25일 6개 정당 광주시당 관계자들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선관위위원회